

외환리포트

## 전일동향

달러-원 환율은 전일 대비 1.2원 상승한 1,044.6원으로 마감

전일 달러-원 환율은 달러-엔 환율이 109엔을 넘어서면서 엔저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상승하였다.

전일 환율은 달러-엔 환율이 109엔을 넘어서면서 심화된 엔저 우려로 인해 상승압력을 받았다. 그러나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투표가 부결로 결정이 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달러화는 하락압력을 받기도 하였다. 고점에서의 네고물량 유입 역시 하락압력으로 작용하였으나, 장 막판 외환당국의 스무딩오퍼레이션(미세조정)으로 추정되는 매수세 유입으로 달러화가 지지되며 장을 마감하였다.

한편 마감 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전일 대비 100엔당 1원 가량 하락한 957.21원에 거래되었다.

## 전일 달러 변동

| 시가      | 고가      | 저가      | 종가      | 평균환율   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1044.60 | 1047.90 | 1041.90 | 1044.60 | 1044.90 |

## 전일 엔화 변동

| 시가     | 고가     | 저가     | 종가    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959.94 | 961.74 | 955.43 | 958.03 |

## 금일 전망

주요 이벤트 종료 후 불확실성 완화되며 1,040원 중심 등락 전망

금일 환율은 주요 대외 이벤트가 종료된 후 불확실성이 완화된 상황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.

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은 전일 대비 3.65원 하락(스왑포인트 고려)한 1,042.5원으로 마감하였다. 금일 환율은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가 부결되며 불확실성이 완화된 상황에서, S&P가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'긍정적'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하락압력을 받을 전망이다. 달러-엔 환율의 상승세가 잠시 주춤하면서 달러-원 환율의 추가 상승세도 제한적일 전망이며, 월말을 앞둔 네고물량 유입이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. 그러나 여전한 엔저 우려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G20 재무장관·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완화적 경제정책을 시사한점은 상승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 환율은 1,040원을 중심으로 등락할 전망이다.

금일 달러/원  
예상 범위

1036.78 ~ 1046.57 원

## 체크포인트

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2415.79억원

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.65원하락

■ 美 다우지수 : 17279.74, +13.75p(+0.08%)

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98.48 억달러

## 주의사항

※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.

※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